

정지화면, 동영상 전용 LCD 모니터



일본 EIZO NANAOS사의 국내 대리점인 씨지코리아가 최근 21.3인치 LCD 모니터인 'FlexScan S2100'을 출시했다.

21.3인치의 넓은 이미지 사이즈와 함께 1600×1200의 네이티브 해상도가 지원되는 S2100은 A4 사이즈의 문서를 겹쳐지지 않도록 나란하게 배열할 수 있으며 스크롤이 필요없도록 배치할 수 있다. 가시각도는 178도이며, 명암비는 1000:1, 밝기는 300cd/m²이다. 오버드라이브 회로가 탑재돼 있으며, 블랙/화이트와 미드톤의 컬러 전환 응답 속도가 가속화 돼 8ms으로 3D 캐드와 비디오의 이미지가 잔상없이 자연스럽게 재생된다. 또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스크린 주변의 베젤이 초박형이어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40도 틸트, 70도 스위벨을 포함,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90도 회전이 가능하며, 80mm 범위 내에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다. D-sub와 DVI-I 입력 단자가 모두 제공되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그널을 모두 수신할 수 있다. 하나의 업스트림과 두 개의 다운스트림 포트를 가진 USB 2.0 허브가 장착돼 있어 다른 USB 호환 주변기기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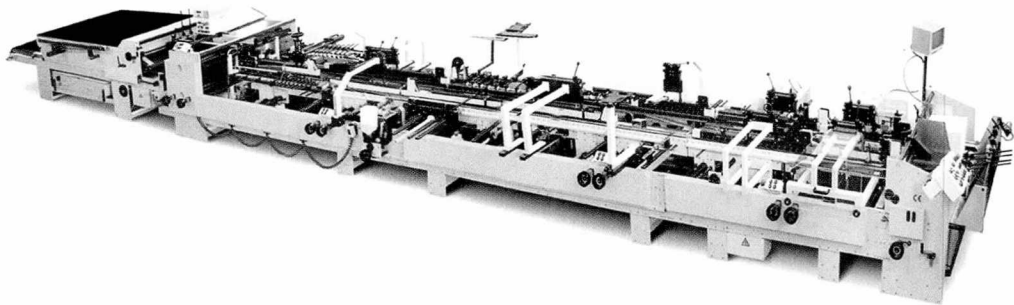
FlexScan S2100은 10-비트 Look-up table이 지원돼 컬러 그래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재생된다. 4000K부터

10,000K~500K 단위로 조정되는 색 온도는 감마, 게인, 색조, 채도와 함께 OSD 메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FlexScan S2100은 밝기를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는 기능과 주변 밝기 조건과 무관하게 이상적인 레벨을 유지토록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EIZO에서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드리프트 수정 회로는 모니터를 시작하거나 절전 모드에서 회복되었을 때 밝기를 빠르게 안정화시켜준다. 또한 Bright Regulator 기능으로 프론트 베젤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 주변 밝기를 인식한 뒤 백라이트로 시그널을 전송, 이에 따라 밝기를 조정한다. 조도가 높은 실내에서 Bright Regulator는 모니터의 밝기 레벨을 높여주고, 조도가 낮은 실내에서는 밝기를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이밖에 주변 밝기 변화에 따라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모니터 밝기 변화를 감지해 자동으로 보정해 준다.

텍스트 문서에서부터 컬러가 풍부한 이미지까지 모든 타입의 콘텐츠를 최적화된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FlexScan S2100은 EIZO의 파인 콘트라스트 기능이 갖춰져 있다. 이것은 Text, Picture, Custom (사용자 설정), Movie, sRGB, 프론트 패널의 5가지 기능으로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모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재질 · 규격 상관없이 접착 가능



하이델베르크사가 최근 시중에 출시돼 있는 인쇄물의 재질과 규격에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한 자동 접착기(ECO 80 · 105)를 선 보였다.

2년전인 지난 2004년 포장 인쇄 산업의 토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인수했던 야겐버그(Jagenberg)로부터 톱슨과 접착기 부문에서 획기적인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이 출시 배경이 됐다.

ECO 80 · 105의 가장 큰 특징은 재질의 여부를 막론하고 접착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면 접착은 기본 중의 기본. 크리징 라인의 사전 접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3면 접착, 그리고 싱글 및 더블 접지가 가능한 이중 접착도 처리가 가능하다. 또 파티션 · 미니어처 접착, 레코드 케이스, 봉투, CD 커버, 4면 및 6면 접착 등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제품의 규격에서 사용이 가능할 만큼 확장된 영역을 자랑한다. 다양성만 보유한 것이 아니다. 작업 전환 시 소요되는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벨트 이송 중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버랩 방식의 롤러 바를 탑재, 효율성까지 배가시켰다.

접착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급지부는 최대한 심플한 구조로 설계됐다. 급지부 전체가 움직일 필요가 없이 벨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과 작

업의 편이성이 극대화됐다. 급지부는 쉽고 신속한 조절이 가능하며 복잡한 사양의 접착물을 위해 서보 드라이브를 이용한 자동 조절 급지부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 또 미끄러운 접착물의 표면에서 발생하기 쉬운 벨트 내의 흔들림 방지를 위해 석션(흡입) 방식의 급지 기능도 추가적으로 보강됐다.

롤러 바의 특징은 조작이 쉽고 간편하다는 것. '퀵 액션' 방식의 클램프를 통해 기계 내부의 접착물 제거가 용이하며 작업 준비 및 전환 시간을 최소화 했다. 또 이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벨트의 장력 조절은 잠금 장치를 통해 초보자라도 한손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특별한 접착물을 다루기 위한 상부의 롤러 바는 세로 방향으로도 조절이 가능해 범위를 폭넓게 쓸 수 있다. 접착 유닛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튀김 현상을 없애기 위해 큰 직경의 글루가 장착돼 있다. 이밖에 적용 헤드는 여러 위치에 유연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CO 80 · 105의 컴프레이션 길이는 총 3미터다. 압력은 안정적인 접착을 위해 정확하게 조절된다. 하부의 시작 부분은 박스의 수동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음새가 달린 플레이트를 접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